

2장: 다신에서 유일신으로 (FROM THE GODS TO THE ONE GOD)

A. 주제

- 다신론 - 인류문화의 범세계적 사상
- 유일신 사상 - 여러 모양으로, 극한적 긴장 상태에서 등장.
신들의 숫자보다는 신의 본질 곧 신성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
- 문화와 과학 - 신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다.

B. 문제점

- 신성에 대한 예전의 대답들은 문화와 과학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그 시대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C. 논점

1. 고대 근동의 종교

- 신과 인간 모두 물질적 존재로 여겨졌다. 단지 그 농도에 차이가 있다.
모든 신들은 몸체를 지녔고,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
“비물질적”이라는 개념-플라톤 이전에는 없었던 생각 (영과 육)

2. 고대인들의 우주관

- 3층천의 세계 - 하늘, 바다, 땅 아래 저승. 지구는 원반 disk 모양이라고 생각
- 고대인들은 신들의 사회가 인간 사회를 반영한다고 여겼다.
종교세계 - 거대한 계급 제도로 구성(pantheon), 신들은 각자 다른 임무를 맡다.
- 단일신교 또는 일신숭배 - 다른 민족들의 신을 인정하면서도, 한 민족이 하나의 신만 예배하는 행위. 수호신, 민족신, 도시신

3. 유일신의 종류

- 포괄적 유일신론 - 유일신론은 제국을 설립/보존하거나 그 상실/멸망을 설명하려는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생겨남. 그 가운데 가장 공통적인 형태가 포괄적 유일신론.
지역에 따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임무를 하는 신들을 동일시, 나아가 흡수 동화.
- 배타적 유일신론 - 가) 최고신은 “단 하나뿐인”것을 주장하는 형태
나) 조로아스터교의 배타적 유일신론 - 모든 다른 신과 종교를 악마화. 신이라 주장할 수 없는 악마의 세력
다) 이집트의 배타적 유일신론 -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
- 삼위일체론 - 그리스 과학에 힘입어 나오게 된 특이한 표현의 기독교 유일신론

4. 그리스 과학과 모나드

- 그리스 수학자/천문학자들의 발견 - 5행성, 지구가 공모양,
- 무너진 3층천 우주관 - 하느님은 이제 어디 있는가?
하느님은 전혀 새로운 존재이어야 했다. 종교의 개정판
- 모나드 Monad: The One 오직 하나. 만물의 원천: 하느님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말이 적용되지 않았다.
- 그리스도교 세계관: 플라톤, 조로아스터교, 영지주의가 합하여 형성됨
선 선 -> 악 전혀 “선”하지 않다
- 모나드로서의 그리스도교 하느님: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알 수 없는 존재
- 이 숨겨지고 알 수 없는 하느님을 인식하는 한 가지 방법:
 - 그 일자(the One) 가 다수(the many)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 하느님의 아들로 인격화한 예수의 기능.
 - 아들 예수는 곧 알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설명.

생각해 보기

1. 문화와 과학이 종교를 변화시켰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 시대의 문화와 과학의 어떤 것이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가?
(단속적 평형설을 해석 모델로 하여)
2. (오늘도 흐르고 있는 하느님의 강 가운데서) 우리는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 유일신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